

경기일보

🏠 > 뉴스 > 인천 > 인천뉴스

김규혁 부평문화원 기획사업팀장 “일제강점기 부평토굴… 역사교육장으로 알려야”

‘부평토굴 발굴 프로젝트’ 은퇴 어르신 사회참여 의미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 노출승인 2017년 04월 10일 20:43 발행일 2017년 04월 11일 화요일 제0면



“부평지역에는 유독 일제강점기 시절 문화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문화콘텐츠’의 일환으로 부평토굴 탐방활동을 진행 중인 김규혁 부평문화원 기획사업팀장은 부평토굴 탐방이 일제강점기가 남긴 아픔이자, 당시 부평지역 사람들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활동임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1930년대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에 본격 돌입하며 부평지역에 조병창을 비롯한 각종 군수공장들을 설치했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산물인 부정적인 문화유산들이지만, 부평토굴처럼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채 그 시대에 남은 부평지역 문화유산들을 찾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역사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평지역은 예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자, 인천항과 가까워 중국으로 가기 쉬운 요충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육군 조병창(현 부평미군기지)이 존재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토굴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김 팀장은 “부평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군이 조선인을 동원해 토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확인된다”며 “일본 오사카 조병창 일대에 발견되는 토굴의 형태가 현재 부평지역에서 발견된 토굴과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수공장 공습에 대비한 피난용 시설이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평토굴 발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선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자, 부평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견된 부평토굴에 그동안 어르신들의 활동 결과물들을 전시해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견학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곡동 영단주택, 미쯔비시 줄사택 등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잘 보전해 부평을 알릴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크톤 이벤트 참여하기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중국 대신 인도... 인천공항 위기를 기회로
- 부평미군기지 환경위해성 평가비공개... 시..

[실시간 핫이슈]

- ▣ MG손해보험, 100세보장 의료실비보험 가입..
- ▣ MG손해보험 100세 보장 의료실비보험 가입..
- ▣ 보험료 오르기 전에 실비보험 상담받기
- ▣ 메리츠화재 100세 보장 비갱신형 암보험 가..